

5세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소통 가능성 탐색

박 순 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요 약 》

2011년 7월 공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담은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한 출발점 형성과 교육 및 보육의 질 관리 기준으로 제정된 5세 누리과정의 취지와 구성 방향, 목표와 영역 설정의 주안점,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의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누리과정의 목표와 영역명 간의 정합성과 함께 교육의 방향과 도착점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시기의 조기화(早期化)를 초래하지 않되 공정한 출발점 형성을 위해서는 누리과정을 통해서 선수(先修)되어야 할 학습 대상이 국가사회적 책무 수행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누리과정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초등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구성 및 조직 방식에서 교과 간 조정이 필요하며, 누리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은 그 범위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을 계기로 향후 양자의 자체 개선 노력과 함께 상호 소통과 조율을 위한 기회가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누리과정, 교육과정 연계, 학습 내용, 학습 기회

I. 서론

5세 누리과정은 2011년 7월에 공표되어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다. 무상 교육·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만 5세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선별하여 마련된 기준으로서의 ‘누리과정’은 유아기 교육에서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과 보육의 혜택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skpark89@kice.re.kr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에 앞서 질 높은 영양 섭취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개개인이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ainbridge, 2002).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공통 기준으로 제정된 5세 누리과정의 특성을 고찰하고, 특히 누리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한 만큼 양자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에 대해서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시도된 바가 없지 않다. 예로서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세 가지 접근을 하였다. 첫째, 초등 통합 교과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워 생활'과 같은 교과 명칭과 동일하게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언어생활', '표현생활'로 명명한 점, 둘째, 교육 내용의 하위 영역을 '구분'이라고 칭하지 않고 '내용'으로 지칭하여 초등 교과 교육과정에서의 하위 영역 명칭과 유사하게 한 점, 셋째, 교육 내용의 진술 방식과 용어를 초등학교의 것과 통일하려고 한 점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8). 이 가운데 마지막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기존의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조작 운동'을 '이동하며 움직이기, 제자리에서 움직이기, 도구 및 놀이 시설을 활용하기'로 변경하였다거나, '임의 단위, 길이, 높이, 크기, 무게, 넓이'를 '임의 측정(손 뻗이나 블록 등)단위, 길이, 크기, 무게, 들어, 시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초등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치원에서 다룬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교육과정 형태로 명명하거나 표현 형식이나 용어를 바꾸는 것일 뿐, 양자의 실질적 연계를 도모하였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로서 통합 교과와 같은 식으로 '00생활'로 영역명을 전환하였다고 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마련된 누리과정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히 2011년에 고시된 점에서 동시점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혀 새로운 정책으로서 누리과정의 취지와 목적 가운데 크게 강조되는 '공정한 출발점 형성'과 '교육·보육의 질 관리 기준'을 합당하게 설정하겠다는 의지에 비추어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 제반 문서들을 중심으로 다음 측면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누리과정 제정의 취지와 구성 방향을 살펴보고, 둘째, 누리과정의 목표와 영역 설정의 주안점, 영역 구성의 구체적 사례를 고찰하고, 셋째, 누리과정에서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초등 저학년 교과 교육과정과 함께 살펴본 후 '수학적 탐구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출발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육의 관점에서 누리과정을 조사(照査)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균형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기준으로서의 양자의 소통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Ⅱ. 5세 누리과정의 취지와 구성 방향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원화되어 온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 교육과정을 일원화한 교육과정으로서 5세 누리과정 제정의 취지와 구성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취학전 교육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

5세 누리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의 관리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취지는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과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로 압축된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원화된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한 공통 과정으로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II수준과 공통 수준, 어린이집의 표준 보육과정의 3수준과 2~3수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선별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I수준, II수준, 공통 수준별로 구성되어 온 유치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반영하여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a). 이를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 문서의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유치원 교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진술 하에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동안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경험을 공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을 선별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1년 기준으로 만 5세아 가운데 90% 이상이 취학전 교육을 받고 있으며, 10%는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 기간은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셋째,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5세 누리과정은 생활 속에서 놀이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아 교육과 보육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교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중심이 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5개 영역의 내용 범주와 내용, 용어 사용에서도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a). 공정한 출발선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의 내용과 활동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만 5세아의 기본 능력 형성

누리과정의 목적은 ‘만 5세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 형성’하는 데 두고 있다. 이와 직결된 5개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곧 만 5세 아동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b).

〈표 1〉 누리과정의 교육 목표

영역	누리과정의 교육 목표
신체 운동 · 건강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1) 기본적 감각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2) 신체를 조절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3)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4)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생활 태도를 갖는다. 5)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의사 소통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1)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말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3) 글과 글자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글자 모양을 인식하고 읽기에 흥미를 가진다. 4) 말과 글의 관계를 알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단어와 문장으로 쓰고 표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사회 관계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지면 관계상 세부 목표 생략)
예술 경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 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지면 관계상 세부 목표 생략)
자연 탐구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 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3) 주변의 관심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지연 현상을 탐구하고 기초 지식을 알아간다.

여기서 만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의 의미와 수준, 범위, 최소필수 학습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학 분야에서 ‘기초’ 및 ‘기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현주 외(2000)의 연구에서는 ‘기초’와 ‘기본’의 의미를 구분하였고, ‘기본 학습 능력’은 다음 학년에서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각 학년에서 최소한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등 비교적 단순한 수준의 기능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는 ‘기초 학습 부진’으로, 교과 학습은 가능하지만 최저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기본 학습 부진’으로 규명한 바 있다. 또한 ‘기초 학력’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길러야 할 ‘학력’ 형성과 그의 바탕이 되는 ‘기초’로 정의되고 있다(남명호 외 4인, 2008a). 기초 학력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며, 다음과 같이 절대적인 성격을 갖지만, 맥락에 따라 상대적 속성을 갖기도 한다.

〈표 2〉 기초 학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

관점	성격
절대적	모든 학문의 기초와 도구가 되는 언어와 수에 관한 학력으로서 3Rs(읽기, 쓰기, 셈하기)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력으로서 각 교과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이나 기능
	의무 교육에서 형성되는 학력으로 일반인들의 바람직한 삶 영위에 필요한 공통필수적 학력
	자립적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역량으로서 고등학교 종료 단계에서의 학력
상대적	학교교육의 위계상 선행 교육 단계 형성에 기초가 되는 이전 단계의 학력

공공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가 담당해 온 기초 기능 교육은 주로 ‘학력’이나 ‘교과’와 관련되어 왔다. 기초 기능은 주로 기초 학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부 교과가 이러한 기초 기능을 습득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서 기초 학력이란 어떤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 능력, 어떤 과제의 학습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학습 능력이 아니라 여러 과제의 학습에 포괄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일반적 학습 능력을 의미한다. 예컨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능력은 기초 학력이 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0).

위의 다섯 가지 정의 가운데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기본 능력’의 의미는 다음의 상호 유관한 세 가지로 압축되며, 이 역시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모든 학습의 기초이자 기본 도구로서 3Rs(읽기, 쓰기, 셈하기)
- 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으로서 각 교과 학습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이나 기능
- 학교교육 위계에 의거한 기본 능력으로서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되는 이전 단계의 능력

이와 같이 ‘기초’ 또는 ‘기본’ 능력을 가늠하기 위한 주안점은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즉 교과 학습의 맥락에서 교과 학습에 필요한 도구적 기초 능력(읽기, 쓰기, 수학)과 학습 능력의 위계상 초보 수준으로서 상위 능력의 토대가 되는 기초 능력일 것이다. 광범위하게 볼 때, 누리과정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도 이와 같은 주안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도구적 기초 능력은 초등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룰 상위 능력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에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국가수준 기초 학력 진단평가에서는 ‘기초 능력’의 의미를 보정 학습 등 추가 수업을 통해서 모든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요컨대

만 5세 누리과정은 취학전 교육과 교육과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공통 기준으로서 만 5세 아동으로 하여금 취학전 교육에서의 공정한 도착점 도달과 함께 초등교육을 향한 공정한 출발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별도의 보정교육 없이는 다음 단계의 교수·학습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방하는 취학전 교육의 질 관리 기준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Ⅲ. 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식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조한 5세 누리과정은 5개 영역의 내용 범주와 내용, 용어 사용에서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구성하였음을 누리과정 해설서에서 밝힌 바 있다.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의 연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 3>에 제시된 문서들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문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누리과정 관련 문서와 그 특징

문서 제목	발간 주체	내용
5세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30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정의 성격 - 5세 누리과정의 구성(구성 방향, 목적, 목표) - 5세 누리과정의 영역별 내용 체계와 세부 내용을 표로 제시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보건	- 총론(제정의 배경 및 특성, 누리과정의 구성) - 각론(5개 영역별 성격, 목표, 내용 범주 및 내용, 세부 내용 안내)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복지부	- 5세 누리과정 운영 방향(편성·운영원칙, 실내외 환경, 교수·학습 방법, 평가) - 영역별 지도 원리 및 유의점(개요, 내용범주별 지도 원리 및 유의점)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	교육과학기술부	- 주제별로 11권으로 구성 -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촉진을 위한 활동 자료 제공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공되는 문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 문서와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교사용 지도서이다. 교사용 지침서에서는 지도 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예시 활동'을 제시하며, 교사용 지도서는 주제별¹⁾ 11권으로 구성되어 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과 교육 목적 및 목표,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

1) 교사용 지도서 11권의 제목이자 학습 주제는 ① 유치원과 친구, ② 나와 가족, ③ 우리 동네, ④ 동식물과 자연, ⑤ 건강과 안전, ⑥ 생활도구, ⑦ 교통기관, ⑧ 우리나라, ⑨ 세계 여러나라, ⑩ 환경과 생활, ⑪ 봄·여름·가을·겨울로 되어 있다.

도록 교육 계획 및 운영의 실효와 교육 활동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도서는 지역과 기관에 관계없이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된다.

1. 목표 및 영역 설정의 주안점

누리과정의 목표 및 영역과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1~2학년군의 교과 교육과정을 병치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누리과정의 목표 및 영역과 1~2학년군 교과

누리과정의 목표	누리과정의 영역	1~2학년군의 교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의사소통	국어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 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자연탐구	수학 즐거로운 생활(과학 영역)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사회관계	즐거로운 생활(사회 영역)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신체운동·건강	즐거운 생활(체육 영역)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경험을 즐기며,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예술경험	즐거운 생활(음악·미술 영역)

누리과정에서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 활동보다는 만 5세 유아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이전 교육과정 시기와 달리 교육 목표에서 '수학적' 능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이다. 수학은 유아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며, 만 5세 유아는 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초보적인 수학적 개념과 기능을 습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후, 교육과정 구성의 주안점에 발달이건 생활이건 무관하게 교육 목표에서는 언어를 비롯한 다른 영역에 대한 이해는 직접 언급해 왔으나, 수학에 대해서는 예외이러 왔다. 그것은 다음 <표 5>의 유치원 교육 목표의 흐름에서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표 5〉 유치원 교육과정(1차, 4차, 6차)에서의 교육 목표

1차(생활 중심)	4차(발달 중심)	6차(생활 중심)
1. 건강 및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른다. 2. 기초적인 생활 습관과 기능을 익히며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바른 사회적 태도와 도덕성을 기른다. 3. 자연과 사회 제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사고력이 싹트도록 한다. 4. 듣기와 말하기를 바로 하고 바른 말과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한다. 5. 심미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고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1. 건강한 안전 생활에 대한 올바른 습관과 기본적인 감각 운동 기능을 기르고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게 한다. 2.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한다. 3. 자기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이를 알아보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4.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생활 주변에서의 느낌과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게 한다. 5.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지게 한다.	1.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경험을 가진다. 2.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3.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4. 바르게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가진다. 5. 일상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궁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상의 목표와 더불어 1차 교육과정 이후 유치원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유치원(1~6차) 교육과정 및 표준 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영역명

시기	교육과정 영역					
1차(1969~)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	
2차(1979~)	신체건강 발달	사회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	
3차(1981~)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정서 발달	
4차(1987~)						
5차(1992~)	건강 생활	사회 생활	탐구 생활	언어 생활	표현 생활	
6차(1998~)						
표준 보육과정	기본 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자연탐구	의사소통	예술경험
5세(누리과정)	신체운동 건강		사회관계	자연탐구	의사소통	예술경험

〈표 6〉에서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명은 대체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다. 1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을 유치원 교육을 통하여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로 보면서 5개의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교과와 동일한 ‘사회’, ‘자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구체적 내용 진술 방식에서는 ‘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조직한 것으로 밝히

고 있다. 이는 교육 내용이 교과나 발달 과업보다는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유치원 교육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유치원 교육과정 해설(I), 2008). 이후 2차부터 4차 교육과정까지는 ‘발달 영역’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5차와 6차 교육과정기에는 다시 ‘생활 영역’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생활 영역으로 회귀한 이유는 발달 영역의 목표들을 교육 활동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웠고, 지침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그러나 발달 영역과 생활 영역의 실질적 차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미분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단 4차 교육과정까지는 발달 영역에 주안점을 둔 점에서 ‘목표’ 지향성을 갖는 반면, 5차 이후에 생활 영역에 주안점을 둔 점은 ‘맥락적·수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은 명칭이 ‘생활’일 뿐, 지향하는 바가 막연하기도 하다. 그 결과로 교육 목표가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에서 잘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수학에 대한 이해’가 교육 목표와 5개 영역명에는 잘 반영되지 않아 왔음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영역’은 교육 목표와 활동을 펼치는 장(場)으로서 유아의 성장·발달을 추구하지만, 영역명의 주안점을 ‘생활’에 둘 경우 교육이든 보육이든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2. 영역 구성 사례: 자연탐구

학습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발달’이나 ‘생활’은 유아의 학습 경험과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이나 환경을 지칭하는 동시에 초등 교육과정과의 차별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세 누리과정은 입학 전 1년간을 다루는 만큼, 생활이든 발달이든 그것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내용에 방향성이 내포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보면, 학습 영역은 발달 또는 생활에서부터 벗어나 ‘교과’로 전환하게 된다. 여기서 누리과정은 유아 교육의 독자성과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처할 수도 있다.

우선 여기서는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 면에서 영역명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누리과정에서는 자연탐구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 목표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구하며, 일상 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를 표방하면서, 다음 3개의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1).

-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태도를 기른다.
- 2)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 3)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기초 지식을 알아 간다.

이와 같이 교육 목표와 내용에 수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의 명칭을 ‘자연탐구’로 할 경우 해당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렵고, 초등 교육과정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은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수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영역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수학적 이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누리과정에서의 기초 수학에 관한 학습은 초등학교 수학과 연계는 되지만 선수 학습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이다. 즉 ‘유아기의 수학적 탐구는 초등학교의 수학을 더 일찍 학습하도록 선수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님’을 누리과정 해설서에서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a). 이 맥락에서의 ‘선수 학습’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유치원에서 미리 앞당겨 학습한다는 뜻으로서 ‘학습 시기’를 조기화(早期化)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하다면 선수 학습보다는 소위 통상적으로 언급되는 ‘선행 학습’이라는 용어가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전적 정의에서는 ‘선행 학습’을 ‘어떤 학습 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학습 또는 습득하고 있어야 할 학습’ 또는 ‘시간적 차원에서 먼저 일어난 학습’으로 정의되고, 그것은 ‘학습 순서’에 주안점을 둔 점에서 ‘선수 학습’과 동일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1995).

주어지는 시간에 배우게 될 학습 과제의 성격상 위계적(位階的)으로 하위에 해당하는 과제나 목표를 성공적으로 습득하고 있으면 본 학습과제의 학습이 용이하게 된다. 이때, 위계상 하위에 속하는 과제의 습득을 선행 학습이라 한다. 학교 학습에서는 선행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학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적 기능(知的 技能)을 다루는 학습 과제의 경우에는 선행 학습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학이나 과학 교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입장은 단순히 학습 순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학습 시기의 조기화, 즉 여기서는 학년이나 학교급을 앞당기는 소위 ‘선행 학습’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러한 맥락에서는 선수 학습은 선행 학습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7〉은 선수 학습과 선행 학습의 의미를 본 연구자가 구분해 본 것이다.

〈표 7〉 선수 학습과 선행 학습의 의미 구분

구분	선수 학습	선행 학습
주안점	학습 순서 및 위계	학습 시기
목표	학습 시점의 적기화(適期化) 학습 범위 및 수준의 적합화(適合化)	학습 시점의 조기화(早期化) 학습 범위와 수준의 확대·심화
특징	출발점 형성의 기능적 필요(functional needs)에 대한 국가사회적 책무 이행	경쟁 우위의 심리적 욕망(psychological wants)에 대한 개인적 충족

위의 구분에서 선수 학습은 공생의 구도에서 학습 기회의 형평성과 교육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습 준비도의 형성 또는 학습 기회 제공의 근거가 되며, 무엇보다 학습 부진에 대한 진단

과 예방을 추구한다. 이에 비해 선행 학습은 경쟁의 구도에서 학습 기회의 불공정성 또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할 수도 있으며, 특히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부진 학생은 부지불식간에 소외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선수 학습과 선행 학습은 대립적 양상을 띤다. 그것은 초등학교에의 대비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유아 교육이 왜곡되거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 유치원 교육에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라는 상급 학교의 교육 내용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앞당겨서 배우는 식의 '선행 학습'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서 설정한 '도착점 행동'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선수(先修)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연계와 선수 학습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에 누리과정은 초등 입학 전에 만 5세 아동이 최소한 무엇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만 한다. 요컨대 누리과정에서 선행 학습은 방지해야 마땅하지만, 선수 학습은 중요하게 챙겨야 할 대상인 것이다. 누리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욕망을 충족하는 기회이기에 앞서, 출발점 형성이라는 기능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국가사회적 책무 이행과 그에 필요한 시방서(specifications)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V. 5세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 문서에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의 연계 분석

교육과정이라는 '큰 덩어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구분 방식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과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로직(logic)이기도 하다.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가장 상위 수준의 교육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누리과정은 '영역'으로, 초등학교는 '교과'로, 다음 수준의 교육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누리과정은 '내용 범주'로, 초등학교는 '영역'으로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누리과정의 '영역'과 초등학교의 '영역'이 다른 자명하며, 학교급 간 상호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측면들이 검토, 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영역-내용 범주-내용-세부 내용'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방식은 5개 영역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

〈표 8〉 누리과정 5개 영역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영역(신체운동·건강) 영역(의사소통) 영역(사회관계) 영역(예술경험) 영역(자연탐구)	영역별 '내용 범주'	영역별 '내용'	영역별 '세부 내용'

구체적인 예로서 의사소통 영역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5세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의사 소통	듣기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낱말의 발음에 관심을 가지고 비슷한 발음을 듣고 구별한다. 일상 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이해한다.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동요, 동시, 동화 듣고 이해하기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즐긴다.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바른 태도로 듣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말하기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지면 관계상 생략〉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	
	읽기	읽기에 흥미 가지기	
		책 읽기에 관심가지기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	

이에 비해 초등 1~2학년군의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은 교과 간에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국어과와 수학과에서 교육 내용을 분할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b, 2011c).

〈표 10〉 초등학교 국어와 수학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제시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과(국어)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내용 체계'를 영역(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별로 도식화하여 제시	'학년군별 세부 내용' (학년군별·영역별) '학년군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내용 성취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과(수학)	‘내용의 영역과 기준’ ‘내용 체계’를 영역(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별로 표로 제시	‘학년군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학습 내용 성취기준’

초등학교 국어와 수학은 세부 차이는 있으나 ‘내용의 영역과 기준’ 항에서 ‘내용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국어의 경우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별로 ‘실제’, ‘지식’, ‘기능’, ‘태도’로 요소를 도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학년군별 세부 내용’ 항에서 다루는데, 그것은 ‘학년군별 성취기준’-‘영역 성취기준’-‘내용 성취기준’의 세 단계로 제시되어 있다. 수학의 경우에도 내용 체계는 영역별·학년군별로 표를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영역(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확률과 통계)별로 해당 학년군에서 다루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 ‘학년군(급)별 성취기준’-‘영역 성취기준’-‘학습 내용 성취기준’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이들 교과의 내용 제시 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초등 국어과와 수학과 1~2학년군의 ‘학년군별 세부 내용’의 구성 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국어	‘학년군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예시〉 1~2학년군 듣기·말하기 영역: ‘일상 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바르고 적극적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며, 고운 말, 바른 말을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낸다.’	‘내용 성취기준’ 〈예시〉 1~2학년군의 듣기·말하기 영역: ‘(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내용을 확인한다.’를 포함하여 8개의 성취 기준을 제시
수학	‘학년군(학교급)별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예시〉 ‘수와 연산’의 경우: ‘① 0과 네 자리 이하의 수, 10000이상의 큰 수를 이해하고, 자연수의 사칙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를 포함, 3개의 기준을 제시	‘학습 내용 성취 기준’: 학년군별, 영역별 〈예시〉 1~2학년군의 ‘수와 연산’의 ‘네 자리 이하의 수’의 경우: ‘①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를 포함, 4개의 기준을 제시 - 학습 내용에 따라서는 성취기준 외에 〈용어와 기호〉,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도 제시

이에 비해 통합 교과는 교육과정 편제에서는 3개 교과가 구분되어 있으나,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3개 교과를 일괄하여 ‘내용의 영역과 기준’이 아닌, ‘주제의 영역과 기준’을 설정하고, ‘주제

체계'를 8개의 대주제(학교와 나, 봄, 가족, 여름, 이웃, 가을, 우리나라, 겨울)로 제시하고, '주제의 성취기준'에서는 '교과별 활동 주제'로 구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a).

〈표 12〉 초등학교 3개 통합 교과의 '주제의 성취기준' 구성 방식

1단계	2단계
교과(바른 생활)	'주제의 성취기준' (8개 대주제마다 '교과별 활동 주제'를 4~5개씩 제시)
교과(슬기로운 생활)	
교과(즐거워 생활)	

이와 같이 통합 교과는 다음에 예시된 '바른생활'과 같이 교육과정 편제와 교과 교육과정의 형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 경우 1~2학년의 국어과와 수학과, 3학년 이후의 교과 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과도 제시 형식을 다른 점에서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표 13〉 바른생활과의 '주제의 성취기준' 부분 구성 방식

1단계	2단계
교과 (바른생활)	'주제의 성취기준'
	〈예시〉 '주제의 영역과 기준' 부분
	(1) 학교와 나
	이 주제는 초등학교 학생이 되어 처음 학교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기본 학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익히고, 자신과 자신의 꿈을 발견하여 키운다.
	(가)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 교통안전 규칙을 알고 안전하게 등·하교한다. (나) 친구와 서로 도우며 공부하기 - 학교에서 친구와 서로 도우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리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어 5개 영역에서 일관된 반면, 초등 교육과정은 교과에 따라 단계의 수와 각 단계에서 포괄하는 수준이 다르다. 즉 각 학교급의 교육과정 덩어리를 나누는 데 사용되는 용어와 의미가 서로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에서의 '영역'과 초등에서의 '영역'이 지칭하는 바가 다르며, '세부 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무엇보다 초등의 경우 국어와 수학, 3개의 통합 교과 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점에서 상호 소통이 쉽지 않다. 이미 통합 교과와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5개 영역과 3~4학년군의 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영역 간 교육 내용의 과다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의 사회 관련 영역의 통합을 시도한 바가

있다(허경철 외, 2004; 박순경 외, 2009). 이는 교과 내용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방안으로 ‘성취기준’ 식으로 진술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것이 지칭하는 바를 명료하게 하여 상호 소통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교육 내용 제시 사례: 자연탐구 영역의 ‘수학적 탐구하기’

수학이 포함된 자연탐구 영역은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 ‘수학적 탐구하기’, ‘과학적 탐구하기’의 세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수학적 탐구하기’와 관련하여 누리과정과 누리과정 해설서와 교사용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a, 2012b).

〈표 14〉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 제시 방식

내용	세부 내용	지도 원리
수와 연산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특정 수부터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 띄어 세기 등 여러 가지 수 세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구체물로 10까지의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경험하게 한다.
공간과 도형의 기초 개념 형성하기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 본다.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고 언어 및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다양한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한다.	친숙한 물체의 형태를 탐색하면서 기본 도형의 속성을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구성해 본다.	도형을 결합하고 분해하는 활동을 통해 도형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일상 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높이, 시간 등의 속성에 따라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 본다.	높이 및 일상에서 길이, 높이 등이 등을 인식하고 비교하거나 순서 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임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적, 높이, 무게 등을 재 본다.	신체나 블록, 연필과 같은 임의 측정 단위를 인식하게 한다.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 본다.	사물이나 일상적 상황에 나타난 규칙성을 발견하도록 한다.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청각적 패턴, 시각적 패턴, 운동적 패턴과 같은 다양한 패턴이 있음을 인식하고 규칙성을 재구성해 보도록 한다.

내용	세부 내용	지도 원리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책에서 찾아보기, 질문하여 조사하기, 관찰하기 등 각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해 본다.	사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	수집한 자료를 그림, 사진,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나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한다.

위에서 누리과정에서 ‘내용’ 부분은 지나치게 간략하고, ‘세부 내용’도 ‘안다’, ‘해본다’와 같이 개괄적으로 진술되어 가독성이 낮아 무엇보다 학습 범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누리과정에서의 ‘도착점 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출발점 행동’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교사용 지침서의 ‘지도 원리’에서도 ‘구체물로 10까지의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은 세부 내용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음으로써 ‘예시 활동’을 통해서만 학습 대상과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해설서와 지침서에서 다룬 ‘수와 연산’의 세부 내용과 지도 원리, 예시 활동을 발췌한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2012a, 2012b).

〈표 15〉 누리과정 ‘수와 연산’의 세부 내용과 지도 원리 및 예시활동 제시 방식

세부 내용	지도 원리	예시 활동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순서 정하기(순서수), 흥미 영역에서 놀이하는 친구 수 세어 보기(집합수), 자기 집 전화번호 알아오기(이름수)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 역할 놀이를 활용하여 수가 사용되는 여러 상황을 경험해본다.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이나 끈 끼우기 자료, 짝이 되는 자료(흰색 구슬과 검은색 구슬)를 사용하여 10이 되도록 구성하고 설명해 본다. - 5와 10을 기준으로 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5칸(10칸)으로 나뉘어진 종이판을 준비한다. 교사가 7을 외치면 유아가 5칸(10칸) 안에 구체물을 넣고 나머지는 종이판 위에 놓아두고 몇 개가 더 있는지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해본다.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특정 수부터 이어 세기, 거꾸로 세기, 띄어 세기 등 여러 가지 수세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개의 사물을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헤아리거나 두 개씩 띄어 세는(2, 4, 6, 8, 10) 등 방법을 바꾸어 세어 보는 경험을 해본다. - 세어야 할 전체 개수 중 일정한 수만큼의 사물을 가린 후, 이미 센 수 다음부터 이어서 세어본다.

세부 내용	지도 원리	예시 활동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구체물로 10까지의 수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경험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치기, 볼링 게임을 하며 쓰러뜨린 비석이나 볼링 핀의 수를 더해보거나 전체 볼링 핀의 수에서 쓰러뜨린 볼링 핀의 수를 빼는 활동을 해본다. - 1에서 10까지 서로 다른 개수의 구슬이 담긴 바구니를 각 유아에게 나누어 준 후, 교사가 제시하는 숫자를 덧셈으로 구할 수 있는 유아들끼리 만나는 활동을 해본다. - 교실이나 운동장 바닥에 가로, 세로 4칸씩 16칸의 정사각형을 그린 후, 1에서 9까지의 수를 적는다. 유아가 콩 주머니를 2번 던져 나온 수의 합만큼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본다.

위의 예시활동들은 어디까지나 예시인 점에서 국가 교육과정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비해 1~2학년군의 수학과 학습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교수·학습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

〈표 16〉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와 초등 수학 ‘수와 연산’ 영역의 성취기준

5세 누리과정	초등 수학과 1~2학년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 수량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안다. •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고 수량을 안다. 	<p>① 네 자리 이하의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0과 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② 일, 십, 백, 천의 자릿값과 위치적 기수법을 이해하고, 네 자리 이하의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③ 네 자리 이하의 수의 범위에서 수의 계열을 이해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④ 하나의 수를 두 수로 분해하고 두 수를 하나의 수로 합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수 감각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p>②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덧셈과 뺄셈이 이루어지는 실생활 상황을 통하여 덧셈과 뺄셈의 의미를 이해한다. ②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③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④ 두 자리 수의 범위에서 세 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⑤ □가 사용된 덧셈식과 뺄셈식을 만들고,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⑥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할 수 있다.

요컨대 누리과정과 1~2학년군의 수학과 내용 제시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학습 내용의 모호함은 입학 앞둔 유아가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시사해주지 못함으로써 누리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고도 공통적인 출발점을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초 능력을 구비하며 만 5세아 교육의 질 관리를 촉진하고, 무엇보다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이 점에서 누리과정의 일부 기준들은 학습의 범위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논의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는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위해 일원화된 교육과정 기준을 제공하여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하고,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에 대비하여 공정한 출발점을 형성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 관리 기준을 합당하게 설정하겠다는 5세 누리과정을 대상으로 그 취지와 구성 방향, 목표와 영역 설정의 주안점, 교육 내용 제시 방식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세 누리과정의 기본 취지는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공정한 출발점을 보장하고,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출발점 행동은 학습에서의 성공적 경험을 돕고 학습자와 교육과정 간의 유대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에 대비한 출발점 행동은 결국 누리과정의 도착점 행동을 의미하며, 이는 누리과정 이수 종료 시 유아가 성취해야 한다고 기대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 목표에서는 '수학적' 능력을 언급하였지만, '생활'에 주안점을 둔 5개의 영역명에서는 해당 부분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생활'에 주안점을 두고 영역을 명명할 경우 교육 목표와 내용을 담기가 어렵고, 초등과의 소통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5세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을 다루는 점에서 그 목표와 내용에는 방향성 또는 도착 지점이 내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은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초기부터 다루어 온 '수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포괄하고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영역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누리과정에서의 학습이 초등 교과의 선수 학습은 아니라는 입장은 초등 교육과정과의 관계 설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누리과정에 언급된 '선수 학습'은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유치원에서 학습시키는 '학습 시기의 조기화(早期化)'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누리과정에 관한 한 선수 학습은 공정한 출발점과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위한 학습 기회 제공의 근거가 되며, 누

리과정에서의 ‘도착점 행동’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선수(先修) 되어야 할 대상이다. 누리과정에서 공정한 출발점 형성은 국가사회적 책무로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 내용 제시 방식에서는 5개 영역에 일관되게 ‘영역-내용 범주-내용-세부 내용’의 4단계로 제시된 누리과정과는 달리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간에 단계의 수와 수준이 다르다. 국어와 수학, 통합 교과 간의 차이는 누리과정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향후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상호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조직과 구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의미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체적인 교육 내용 진술 방식과 관련하여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 부분은 가독성이 낮고 학습 범위를 가늠하기 어렵고, 초등 수학 교육과정과의 접점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학습 내용의 모호함은 누리과정에서 강조한 공정하고도 공통적인 출발점 형성과 만 5세아 교육의 질 관리, 초등 교육과정과의 소통에 한계를 갖는다. 이 점에서 일부 기준들은 학습 범위와 수준을 담은 ‘교육과정 기준’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유아 교육과 초등 교육의 소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초등학교의 교과에 해당하는 것이 누리과정에서는 ‘영역’이며, 또한 그것은 ‘흥미 영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한 흥미 영역은 ‘실내·외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각 환경에서 전개되는 활동이 곧 교육 내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²⁾ 이러한 구분에는 물리적 시설과 설비, 교구 및 교재의 배치, 활동 집단의 규모가 다분히 작용하고, 지도 방법에서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중심의 통합적 교육과 보육 활동이 강조된다. 유아 교육과 보육에서는 교육 목표와 활동(내용)의 연계가 모호할 수도 있지만, 특단의 조치로 제정된 5세 누리과정에서 만큼은 흥미 중심의 통합적 활동 가운데서도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내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의 많은 차이를 감안할 때, 양자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을 계기로 유아 교육에서 초등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과 조율을 위한 기회가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과 활동 집단의 규모에 따라 ‘자유 선택 활동’, ‘대소집단 활동’, ‘바깥놀이 활동’으로 구분되는, 소위 ‘교수·학습 방법’과 그에 따른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방법	활동 영역
자유 선택 활동(실내 환경 구성)	쌓기놀이 영역, 언어 영역, 역할놀이 영역, 수·조작 영역, 과학 영역, 음률 영역, 미술 영역
대·소집단 활동	이야기나누기, 동화 동시 동극, 게임, 음률활동, 신체활동
바깥놀이 활동(바깥놀이 환경 구성)	운동놀이, 모래놀이, 물놀이, 자연탐구 및 관찰, 작업, 휴식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 교육과학기술부(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Ⅰ)**.
- 교육과학기술부(2011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15].
- 교육과학기술부(2011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어**.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5].
- 교육과학기술부(2011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수학**.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 8].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1). **5세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0호.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a). **5세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b).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2012c).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11권)**.
- 남명호, 김명화, 김소영, 김경성, 이규민, 오사와코이치, 남민우, 이경화, 고정화, 우연경, 김승현, 신현단, 최익준(2008a).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 학력 진단 평가연구(종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08-5-1.
- 박순경, 곽영순, 김해경, 민경훈, 민부자, 백경선, 신기철, 오은순, 유병열, 은지용, 이용애, 조광희, 조미혜(2009).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 개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9-47.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0).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허정철,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2004).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4-4-1.
- 현주, 박효정, 이재분(2000). **초등학교 기초·기본 학습 부진 학생 판별 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CR 2000-5.
- Brainbridge, William L. (2002). *Leaving Children Behind. Technos Quarterly, Summer 2002*.

· 논문접수 : 2012-09-01/ 수정본접수 : 2012-10-11/ 게재승인 : 2012-10-17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5 Year old Childrens' Nuri Program and the Primary Lower-graders' Curriculum

Soon-Kyung Par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Nuri program is the new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for 5 year old children, which contains the common standards to provide proper learning and nursing opportunities prior to primary school entrance. It is very important to set a reasonable entry behaviors, for example, basic abilities, attitude and traits required for being schooled. In relation to the new measure,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its possibility of communicating and articulating with primary lower-grade curriculum standards. The main targets of this study are the validity of goals and objectives of Nuri program, the coherence of five learning areas and learning contents organization method. Being carried in relation to the 2009 revised primary curriculum stand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nature of basic abilities and traits and to clarify the goals and directions of preschool education for curriculum articulation with primary school. Second, it must be stressed to adjust the contents organization method of primary school subjects for effectiv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Nuri program and primary curriculum. Third, the contents of Nuri program have to be more clearly delineated in order to indicate the scope and level of learning in each areas. These tasks are essential for stimulating national accountability to offer high-quality learning opportunities to kindergartens and primary schools.

Key Words : Nuri program, curriculum articulation, learning contents, learning opportunities

